

치 사

신록의 계절을 맞아 북한산 적조사 일대가 화엄세계를 일궈 놓은 듯 싱그러움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티없이 맑고 밝게 웃는 천진동자의 웃음 속에 자성의 부처님이 계시듯, 오늘 이곳 적조사 가람 어린이집 개원식은 이 나라 동량인 영유아들과 학부모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와 성북구청의 도움으로 종단 사찰로는 처음으로 민관이 연대해 가람 어린이집을 개원할 수 있도록 애써주신 박원순 서울시장님과 김영배 성북구청장님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 신재균 성북구의회 의장과 의원 등 관내 기관단체장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어려운 사찰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 어린이 포교와 사회공헌을 위해 노력을 마다하지 않은 적조사 주지 법화스님과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민주당 노웅래 의원님과 서왕진 서울시장 비서실장님, 그리고 서울시의회 의원 등 사부대중 모두에게도 고마움 마음을 전합니다.

‘만 가지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만 가지의 공덕이 필요하고, 만 가지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만 가지의 책을 읽어야 한다’ 는 말씀처럼, 교육에 있어 인성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인성이 뒷받침 되지 않은 교육은 미래 위의 누각과 같습니다. 영유아들은 자라면서 부모의 모습을 인지하고, 주위환경을 배워 나갈 것입니다.

인성의 강조를 중시하고 부모의 마음을 담아내며 주위의 여건을 십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은 지역복지의 성과로 귀결되며 현시대의 요구라 할 것입니다.

이에 맞추어 서울시가 추진하는 민관공동연대 방식으로 개원하는 가람 어린이집은 일반적인 어린이집과는 달리 사찰내 기존 건물을 활용해 예산상의 효율을 높이고, 우리 종단이 중요하게 추진하는 사찰의 사회공헌을 현장에서 구현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어린이 보육시설과 맞벌이부부의 영유아 보육문제는 사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넘어 섰기에, 종교계 역시 영유아 보육문제의 고민

을 함께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나라의 미래를 보기 위해서는 교육제도를 보라고 했습니다. 비록, 첫 걸음마 단계인 사찰과 민관연대 어린이집이지만 미래의 동량을 키워내는 데 그 역할을 다하고, 희망찬 미래를 가늠하는 교육제도의 실천이라는 사명으로 좋은 표본이자 모범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가람 어린이집은 사찰 어린이집만이 아닌 지역사회와 호흡하며, 종교가 해야 할 사회공동선 실천에도 앞장 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영유아와 학부모들이 사찰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하고, 힘들고 지친 일상생활에서 부처님의 가르침과 스님과의 상담을 통해 치유 할 수 있다면, 가람 어린이집은 지역은 물론 서울 전역의 어린이집에 있어서 가장 수범적인 모습으로 우뚝 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가람 어린이집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그간의 노고에 애쓰신 관계자와 사부대중 모두에게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 합니다.

불기 2557(2013)년 4월 3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합장